

## 제주 유배객 충암(冲菴)의 교유와 감춰진 이름들

김 덕 수\*

### [초 록]

충암(冲菴) 김정(金淨)이 제주 적소에서 지은 시편이 『海島錄』에 실려 있다. 작품이 영성할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을 추론할 만한 단서가 부족한 탓에 시편 제작의 배경과 유배기 교유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충암의 제주 시편은 처음부터 「해도록」이란 시록(詩錄)에 별도로 묶였다. 초기 형태의 「해도록」이 초간본 간행 직전까지 존재했다는 점, 『충암집』 간행을 두 차례 거치며 편차자 견해에 따라 주석이 가감되거나 작품의 소종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충암의 초고 한 시 가운데 애초에 제목이 달리지 않은 작품이 다수 있었다는 점, 충암의 저술로 여겨지는 『濟州日記』가 <冲庵先生年譜> 찬술 시점까지 실재했다는 점 등은 주목을 요한다. 훈구파의 서술 퍼런 감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제(思齊) 안처순(安處順)은 물심양면으로 기묘사림을 도왔다. 안처순과 기묘제현이 수수한 서간을 통해 당시 삼엄했던 정국과 기묘제현의 위축된 입지, 간찰을 매개로 시국에 관한 정보까지 전달해 준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충암(冲菴), 김정(金淨), 「해도록」(海島錄), 『충암집』(冲庵集), 안처순(安處順), 기묘제현(己卯諸賢)  
Chung-Am, Kim Jung, 「Haedorok」, 『Chunganjip』, An Chu-Sun, Gimyo-sages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다. 충암이 적소에서 지은 시편 가운데 대상 인물이 감춰지거나 왜곡된 경우가 자주 보이는 것은 자칫 훈구파의 감시망에 포착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가 초토화될 수 있으므로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안치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절해고도의 유형지까지 직접 찾아가 죽음을 목전에 둔 벼를 위로했고, 내륙의 벼이 인편을 통해 술이나 시문을 보내며 서로 소통했으며, 충암을 익히 알아왔던 제주목사 이운번(李允蕃)이 유리안치 공간을 방문하여 개인적 만남을 가진 듯하다. 그러나 작품 속에 그들의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일부 제주 토착민과 제주목사 이운(李耘)의 실명이 문면에 노출되는 것은 교제의 성격과 시편의 내용이 사당(私黨) 수립이나 역모 동조의 혐의와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 1. 서론

제주 굴림서원에는 오현(五賢), 즉 충암(冲菴) 김정(金淨),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동계(桐溪) 정온(鄭蘊),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배향되어 있다. 이들은 시각에 따라 여러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앞의 두 인물은 사림파와 훈구파가 대립하던 중종조(中宗朝)에 제주와 인연을 맺었고, 뒤의 세 인물은 17세기에 제주에 발을 디뎠는데 각각 선조, 광해군, 숙종 연간이다. 또한 충암과 동계, 우암은 죄인 신분으로 제주에 유리안치된 반면, 규암과 청음은 목사(牧使)와 안무어사(按撫御史)라는 공적인 직임을 띠고 이곳을 찾았다. 이밖에 충암과 동계, 청음이 산문 찬술을 통해 제주에서 견문하고 체험한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는 점도 나머지 두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세 사람의 제주 유배객 가운데 충암의 유배 생활은 동계나 우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단하고 열악했다. 당시 사림세력에 대한 훈구파의 감시와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기묘사림이라 일컬어지는

일군의 선비들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이들을 관할하는 지방관의 예우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동계가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유배생활을 보냈던 점과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 형제와 자손, 제자까지 대동했던 우암의 경우는 110일 남짓 제주에 머물렀는데 한가롭게 독서와 사색을 일삼다가 남는 시간에 다양한 저술을 남길 만큼 정서적으로 여유로웠고 운신의 폭도 제한적이지 않았다.

충암이 제주에 위리안치된 기간은 14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제작한 한시는 「海島錄」이라는 시록(詩錄)에 따로 정리되었다. 본고에서는 「해도록」 소재 한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충암의 제주 유배 한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주제론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이에 유배객 충암이 견지했던 정신세계, 혹은 유배 한시에 구현되어 있는 충암의 내면 정서나 현실 인식 등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sup>1)</sup>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대략 신세의 자탄, 은둔도피와 자연애, 무상(無常)과 회향(懷鄉), 별한(別恨)과 통한(痛恨), 이상과 현실의 괴리, 군자고궁(君子固窮)의 정신세계 등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느 유배객의 한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거니와 충암의 삶과 충암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 면밀한 이본 교감을 통해 충암의 대표작이라 칭할 수 있는 <牛島歌>의 계통을 파악한 논고가 보고되기도 했다.<sup>2)</sup>

1) 김기동(1983), 「冲菴 金淨의 流配文學考」,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필(1985), 「冲菴의 濟州流配漢詩考」, 『겨레어문학』 10호, 겨레어문학회; 박수천(1999), 「冲菴 金淨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4, 한국한시학회; 정시열(2011), 「조선 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한국고전연구』 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이밖에 <濟州風土錄>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김상조(2000),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연구」, 『대동한문학』 13권, 대동한문학회; 이종묵(2005), 「한국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문화: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유리(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호, 탐라문화연구소.

2) 윤치부(2017), 「김정 <우도가>의 이본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0호, 한국시가

본고에서는 먼저 충암의 제주 한시를 대상으로 일종의 텍스트 비평을 시도하겠다. 「해도록」에 관한 내용적 고찰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바, 「해도록」 텍스트의 내부를 관류하는 몇 가지 인문학적 코드를 추출하려는 것이다. 충암은 제주목에 유배되고 위리안치 처소에 구금되었다. 그렇다고 14개월 동안 충암과 교류하거나 소통한 사람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이채로운 점은 충암의 아우 김이(金易), 두어 명의 제주 토착민, 한 명의 관원을 제외하고는 시편의 대상 인물이 작품 속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sup>3)</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종종 연간 기묘제현과 사제(思齊)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우정과 교류를 기술한 뒤, 충암의 제주 유배기 한시에 상대방의 실체가 감춰진 정황과 그 배경을 추론해 보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암의 유배기 교류 실상과 당대 시대적 분위기가 일정 부분 해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제주 유배객 충암의 문학 활동과 『충암집』 간행

충암이 위리안치 공간에 갇힌 영어(囹圄)의 신분이라고 해서 외부 출입이 전적으로 통제된 것은 아니었다.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외출이 가능했다. 충암이 아끼던 이정(梨亭)으로 가끔씩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드물게나마 금강사(金剛社) 굴 과수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때론 바다 어귀까지 가서 은어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줄을 드리웠으며, 바닷가 언덕에 앉아 작은 물고기를 낚기도 했다.<sup>4)</sup> 무엇보다 한시 제작은

---

문화학회.

3) 충암의 시문(詩文)에 그 실체가 드러난 인물은 제주 토착민으로서 문세걸(文世傑), 고근손(高根孫), 방순현(方舜賢)이고 관원으로서 제주목사 이운(李耘)이다. 방순현에 대해서는 판관(判官)의 처남이라는 모호한 정보밖에 없는데, 현직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바, 제주 토착민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듯하다.

유배객 충암의 일상 중에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였다. 사사되던 해에 저물어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변방 읍성에 봄이 다해도 아쉬워하는 이 없거늘, 오직 시 짓는 늙은이만 만감이 교차하네.”라 읊조린 것처럼 충암은 자신을 ‘시 짓는 늙은이[詩翁]’라고 칭하고 있다.<sup>5)</sup> 한시를 읊조림으로써 외딴섬에 갇힌 유배객의 심사를 토로하고 또 달랜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된 『충암집』 초간본(1552년)과 중간본(1636년)의 간행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충암의 당질(堂姪, 오촌 조카) 김천우(金天宇)가 충암의 유고를 수습한 뒤 1550년경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에게 문집 산정과 편차를 부탁했으나 김천우의 사망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가 공주목사 허백기(許伯琦, 1493-1563)가 본인이 별도로 수습한 충암 유고와 신광한이 가지고 있던 충암 유고를 합쳐서 1552년 공주에서 초간본을 간행했다. 아래 인용문은 당시 간행을 주도하

- 
- 4) 金淨, 『冲菴集』 권4, <濟州風土錄>. “至海口成潭【至此水清, 又有清潭, 深處人不得行, 可泛舟. 中產銀唇最多, 傍有蘆葦之屬, 稍有江湖之幽趣】. 產銀口魚, 或網得或釣得. 海有小魚數種, 亦可坐岸而釣. 如此似差可而興味甚淺, 不如清江潤溪之樂, 蓋坐處無小可者故也. 海釣則又風浪洶蹙, 絕少安帖之日, 尤無淡雅之味. … 중략 … 旣無意中人可共, 如君所言略無心悰. 且國法可畏, 故其出甚稀, 一溯不過或一或二, 或踰朔不出. 梨亭亦不甚數出, 橘園尤稀往, 踽踽獨步, 祇增索寞耳. 【橘熟時則嫌亦宜遠, 官有直守.】”; “屋墻外二十許步正北, 有古梨樹一株, 高丈餘, 枝疏葉薄, 非好樹, 暫治而亭之, 環以苦竹. 然地勢高遠, 則北望滄海, 楸子諸島, 歷歷眼底. 稍遠則西望城中村煙官柳及城南果園【在內城之南·外城之內·前泉之源, 乃官植橘柚之園, 外城爲泉, 重築里餘, 使泉在城內. 此園去吾亭半里, 呼聲不遠】. 橘林頗有景致. 最近則俯臨金剛社果園, 橘柚滿植, 園去亭可五六十許步, 限以石墻. 然有小竹逕可通, 時得逍遙其下, 玉葉金實, 青黃橘爛, 劈之香噴. 君所謂‘長歌橘柚林’, 斯時也得得不佞然一延頸相憶耶! 惡地斯亭, 有少賴焉.” 충암은 위리안치 처소 근처에 있던 배나무를 정자(亭子)로 꾸민 뒤 고죽(苦竹)으로 담장까지 만들었다. 퇴계가 청량산을 오가산(吾家山)이라 부른 것처럼 충암은 이 정자를 ‘吾亭’, 즉 ‘내정자’라 불렀다. 혹은 ‘배나무 정자’라는 뜻의 ‘梨亭’으로 칭하기도 했다. 충암은 이곳에서 주변 풍광을 내려다보는 것을 즐겼다.
- 5) 『冲菴集』 권3, 「海島錄」, <多字> 전구와 결구. “邊城春盡無人惜, 唯有詩翁情緒多.” 이하 「해도록」에 수록된 시편을 인용할 때는 출전을 생략한 채 제목만 표기하겠다.

던 허백기가 신광한에게 띄운 편지의 일부다.

내가 충암의 유고 약간 권을 얻은 뒤 재목을 모으고 기술자를 고용하여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公의 집에 온전한 원고[全稿]가 소장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듯합니다. 바라건대 서둘러 찾아 보내주어 그 오류를 교정할 있게 해 주시고, 또 권말에 서문을 써서 이 일을 기록해 주시기를 청합니다.<sup>6)</sup>

허백기는 자신이 손에 넣은 것을 ‘冲菴遺稿若干卷’이라 말하고, 신광한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全稿’라고 칭했다.<sup>7)</sup> 김천우가 신광한에게 산정과 편차를 부탁했던 원고가 허백기가 수습한 것에 비해 양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더욱 온전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초간본 간행 전에 오류의 교정을 담당할 것도 허백기 측이었다. 당시 본집(4권 3책)과 외집(2권 1책)으로 구분하여 도합 6권 4책으로 편집했다. 그렇다면 허백기가 수습한 유고(遺稿)는 외집에, 김천우가 수습한 전고(全稿)는 본집에 편차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거나 허백기 수습 유고는 1504년부터 1515년 이전까지의 한시이고 김천우 수습 유고는 1515년 이후의 한시와 기타 산문인 셈이다.

---

6) 申光漢, 『企齋文集』 권1, <冲菴集序>. “吾得冲菴遺稿若干卷, 鳩材倩工, 已臨首事, 似聞公家有全稿藏焉. 望亟搜付, 俾得校正其舛訛, 且請序于卷端, 以記其事.”

7) 許伯琦는 1616년(중종 11) 충암이 <請復故妃愼氏疏>로 인해 報恩 舍林驛에 유배되었을 때 충암을 찾아가 그와 인연을 맺으면서 학문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冲菴集』, <冲菴先生集跋>[許伯琦]. “丙子年間, 公嘗戾罪于報恩之舍琳驛, 即在俗離山之傍也, 縱探乎千巖萬壑, 足跡靡所不至. 余初不識公, 聞風追逐, 若遇清川白石, 輒與對討披懷, 其感發興起, 固已知之乎人所不知處, 嗒然無語, 祇相笑而已. 不閱月, 已覺非前日之不肖也.”

[표 1] 충암의 유고 수습과 정리에 깊이 관여했던 당질(堂姪) 김천우(金天宇)와 충암의 관계

金處庸 - 金孝貞 - <b>金淨</b> - 金喆葆(충암 형 金光의 次子) - 金曾孫 - 金碧 - <b>金天宇</b>
---

중간본은 충암의 증손 김성발(金聲發)에 의해 간행되었다. 김성발은 1632년(인조 10) 금산군수(錦山郡守)로 부임한 뒤 문집 중간(重刊)을 염두에 두었으나 고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1636년 1월 간행에 착수하여 당년 5월에 작업을 완료했다. 초간본에는 외집을 별도로 두었으나 중간본에서는 한시 제작 시기를 고려하여 본집 속에 수렴한 뒤 5권 5책으로 편차했다. 이때 초간본의 오류를 다수 수정했고<sup>8)</sup> 초간본에 잘못 수록된 한충(韓忠)의 사직소(辭職疏)를 삭제하기도 했다.<sup>9)</sup> 중요한 점은 외집에 수록된 시편을 제작 시기를 고려하여 중간본의 권1과 권2 전반부에 수록했다는 것이다.

중간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암이 제주에서 찬술한 시편은 『충암집』 권3에 편차된 「海島錄」이라는 시록(詩錄)에 실려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충암집』 초간본<sup>10)</sup>과 규장각에 소장된 『충암집』 중간본<sup>11)</sup>의 외형적 특징을 거칠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8) 실제로 중간본 <제주풍토록>(『충암집』 권4)의 경우, 초간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곳이 13곳에 이른다. 옥(土+屋)地 → 堀地, 通知 → 通之, 魚腹 → 魚腹, 勢不能可 → 勢不能耳, 何足歎焉 → 何足與焉, 獐猪鹿 → 獐鹿猪, 鶴鵲等 → 無鶴鵲等, 海衣甘 → 海衣甘答黃角, 聞有而全惡 → 間有而全惡, 經冬則二三月 → 經冬到二三月, 酸稍適中 → 酸甜適中, 味仕絕 → 味佳絕, 亂風襲雪 → 盲風襲雪.
- 9) 『冲菴集』, <冲菴集識>[金聲發]. “今年春, 捐廩鳩材, 招工始刊, 五閱月而功訖. 小遂孱孫之志願, 亦云幸矣. 當初編集, 有外集之別, 而今考其日月先後, 隨其次而混合之, 凡五秩也. 韓松齋辭職疏, 誤載集中, 故刪去焉.”
- 10) 청구기호는 D3B1588이다.
- 11) 청구기호는 一簣古7320이다. 이 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한 한국문집총간(v.23)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표 2] 『충암집』 초간본과 중간본의 편차 및 구성

구분	간행자	권책	본집과 외집 유무		책차	권별 이동	비고	
초간본 1552년	公州 牧使 許伯琦	6권 4책	本集 4권 外集 2권	본 집	책1	권1 ⇒ 권② 중간 ~권③ 중간	■ 詩 《1515년~》	
						권2 ⇒ 권③ 중간 ~권③ 끝	■ 詩 《1520년~》 권수제 : “沖菴集卷之二 海島錄” <次淸風亭韻> 주석 : “見聞錄”	
					책2	권3 ⇒ 권④	■ 文	
				책3	권4 ⇒ 권⑤	■ 文 권수제 : “孤峯亂藁”		
				외 집	책4	외집 권1 ⇒ 권①	■ 詩 《1504년~》	
						외집 권2 ⇒ 권② 전반부	■ 詩 《1513년~》	
중간본 1636년	錦山 郡守 金聲發	5권 5책	本集에 外集 수렴		책1	권①	■ 詩	
					책2	권②		
					책3	권③		詩
								海島錄
								見聞錄
					책4	권④		■ 文
책5	권⑤							

초간본 외집에 수록된 1504년부터 1515년 이전까지의 한시는 중간본 권1과 권2 전반부에 차제되었다. 초간본 본집 책1에는 1515년 이후의 시편이 실려 있는데 권1에는 1520년 이전의 한시가, 권2에는 그 이후의 한시가 각각 실려 있다. 초간본 본집 권2 권수제에는 ‘海島錄’이라는 시록명(詩錄名)이 붙어 있다. 애초에 초간본을 간행하던 시기부터 「海島錄」이 독립된 시록으로 묶인 것이다. 「해도록」을 포함한 초간본 권1과 권2



는 중간본 권2 후반부와 권3에 고스란히 수렴되었다.

초간본 본집 권2 중간에 차제된 <次淸風亭韻>이란 작품의 시제 아래에는 ‘見聞錄’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충암의 당질 김천우가 주변 인사들에게 충암 작품을 수습했을 때 작성한 주석일 터이다. 초간본 본집 권2가 중간본 권3에 편차되면서 <차청풍정운> 이하의 모든 시편들까지 ‘見聞錄’이라는 별도의 시록에 묶이게 되었다. 단일 작품의 주석이 그 이하의 나머지 시편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교감이 요구된다.<sup>12)</sup>

초간본 「해도록」에 36번째로 실린 작품은 <題僧軸>인데 시제 아래에 “이하는 모두 전해들은 것으로서 시록에 실려 있지 않다.”(此下皆傳聞而不在錄中)라는 주석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간본에서는 이 주석을 삭제한 뒤, 시제 밑에 “중의 이름은 월간(月侃)인데 경산(京山, 경상도 星州)에서 바다를 건너와 시를 구했다고 한다.”(僧名月侃, 自京山渡海索詩云)라는 주석을 붙이고, “시축에 申命仁 시가 있기에 이 절구를 지어 중을 통해 부쳤다. 可鎮은 崔壽城의 字이다.”(軸上有申命仁詩. 作此絕, 因僧寄之. 可鎮崔壽城字也)라는 주석을 작품 말미에 추가했다.<sup>13)</sup> 초간본 주석은 당질 김천우가 작성한 것으로 <題僧軸>이 애당초 「海島錄」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본 주석은 증손 김성발이 작성한 것으로 <제승축>을 「해도록」에 포함시키며 이 시편의 배경을 주석을 통해 부연했다. 주석 문장이 ‘云’ 자(字)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김성발이 문집 편차를 수행하다가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을 옮겨 적었을 것이다. 이상의

12) 예컨대 「해도록」의 마지막 작품인 <題路傍松>의 경우, 초간본 시제(詩題) 아래에 “此下四首, 或疑崔壽城作.”이라는 주석을 달면서 이하 4수의 한시가 최수성(崔壽城)의 작품일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중간본에서 본 주석을 삭제하며 이하의 작품까지 모두 충암의 시편으로 확정되었다.

13) 필자가 참조한 규장각본에는 “軸上有申命仁詩○此絕○僧寄之可鎮崔壽○○也.”로 되어 있으나 여타 문헌 기록의 편린과 문맥의 승접을 고려하여 해당 주석의 원형을 재구한 것이다.

사례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의해 주석이 가감되며 작품의 소종래가 판단되던 정황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충암이 제주에서 제작한 시편이 처음부터 시록(詩錄)의 형태로 묶여 있었고 초간본 간행 직전까지 그 시록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해도록」에는 37제의 한시가 실려 있다.<sup>15)</sup> 「해도록」 시편을 살펴보았을 때, 충암의 초고 한시 가운데 애초에 제목이 달리지 않은 작품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해도록」 한시 중 첫 번째 시구가 시제(詩題)로 수렴된 사례

시 제	첫 번째 시구	비 고
<一撮>	一撮耽羅島	첫 번째 시구 중 첫 번째 시어
<絶國>	絶國無相問	"
<去國>	去國投蠻徼	"
<積水>	積水浮天極	"
<微風和雨>	微風和雨政廉織	"
<寥落>	寥落幽軒散奕基	"
<山雨>	蕭蕭山雨下茅庵	첫 번째 시구 중 시어
<雨>	落木荒城雨	"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 시구에 포함된 시어, 특히 처음 두 글자를 제목으로 설정한 경우가 다수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논어』

14) 예컨대 초간본 「해도록」 가운데 다섯 번째 작품인 <贈別>의 시제 아래에 “이상의 절구 4수는 시록에 실려 있지 않다.”(此上四絶不在錄中)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그리고 초간본 「해도록」에 실린 <苦熱 奉簡仲野公求竹簟>의 시제에도 “이 시편은 본디 <삼장> 위에 있었다.”(此篇本在<鍾杖>之上)라는 주석이 보인다. 이 작품이 애초 시록에는 <謝仲野公惠鍾杖> 앞에 실려 있었으나 시편의 내용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임의대로 순서를 바꿨다는 의미다. 적어도 초간본 간행 즈음까지 충암의 시록(詩錄)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15) 여기에는 제주로 향하는 길에 지어진 6제의 작품과 최수성(崔壽城)의 시편일지 모르는 1제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나 『시경』의 편명을 해당 편의 첫 번째 단어로 대체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혹은 <多字>의 경우처럼 운자(韻字)로 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다. 애초에 충암이 시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시록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하는 자가 임의대로 제목을 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충암의 제주 저술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가 <충암선생연보> 주석에 보인다. 여기에는 제주 적소에 도착한 직후, 충암을 찾아온 어느 노인과의 일화가 매우 소상히 적혀 있는데 그 출전이 『濟州日記』로 명시되어 있다.<sup>16)</sup> 훗날 <연보>를 찬술할 때 『제주일기』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일화 속에서 충암은 ‘선생’이라 지칭된다. 그렇다면 충암을 ‘선생’이라고 부르던 제3의 인물이 충암 곁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우선 상정할 수 있다. 혹은 충암이 『제주일기』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연보에서 이 책을 간접 인용하며 일인칭 지시대명사를 ‘선생’으로 고쳤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동생 김이(金易)의 제주 체류 일자가 20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복과 함께 지낸 점, ‘제주일기’라는 서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주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일기』는 충암의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명한 사실은 <연보>를 찬술할 때 『제주일기』를 참조했다는 점과 당시까지 실재했던 『제주일기』가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이다.

### 3. 닫힌 공간 속, 충암의 교유와 소통

절해고도로 귀양 간 충암은 유리안치 거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

16) 『冲菴先生年譜』上, ‘庚辰年’조. “按『濟州日記』曰, 先生到謫所十許日, 似夢非夢. 有白衣老人來致談曰, ‘與子相見久矣, 不知文章之如何, 願賞一篇.’ 先生答以流落天涯, 焉有一字隨來者. … 중략 … 卽呼首句以促之, 先生不得已勉應之, 至‘琴從膝上鳴’, 老人驚曰, ‘詩格依舊.’ 吟玩良久, 因忽不見云.”

다. 닫힌 공간 속의 또 다른 닫힌 공간에 갇힌 셈이다. 그렇다고 14개월 동안 충암이 만나거나 소통한 사람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특정할 수 없는 인물과 제주목사, 제주 원주민과 접촉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 이채로운 점은 제주에서 충암과 소통했던 인물 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3.1. 기묘제현과 안처순의 세한지교(歲寒之交)

평소 기묘제현과 친밀한 교유를 나누었던 사제(思齊) 안처순(安處順)<sup>17)</sup>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벼들을 도왔다. 『思齊先生實紀』 권1에 수록된 <연보>의 ‘기묘년(1519)’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綾州로 가서 趙靜菴(필자주: 趙光祖)을 방문했고, 또 바다를 건너 南海에서 自庵 金公(필자주: 金絀)을 만났다. 【능주와 해남은 두 공의 謫所다. 당시 여러 소인배들이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선한 선비들을 일망타진하려 했으나 선생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았다. 무릇 친구 중에서 남쪽으로 쫓겨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음이 없었다.】<sup>18)</sup>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안처순은 기묘사화 직후에 능주로 유배 간 조광조(趙光祖)를 방문했고, 다시 김구(金絀)를 위로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남해(南海)까지 찾아갔다. 사림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훈구파의 감시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17) 『思齊先生實紀』 권1, <年譜>. “己卯年. ○十一月十五日夜, 土禍作. 【先生之所嘗交好一代名輩, 相繼擯黜.】”

18) 『思齊先生實紀』 권1, <年譜>. “訪靜菴趙公於綾州, 又涉海見自庵金公於南海. 【綾州·南海, 卽二公之謫所也. 時群小從傍睚眦, 將欲一打善類, 而先生不少畏忌. 凡知舊之擯于南者, 無不就慰而極力周資.】”

다. 안처순은 이듬해 벼슬을 버리고 남원으로 낙향했다. 위 인용문의 주석에서 볼 수 있듯이 조광조와 김구,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유배간 모든 벗들을 찾아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는 제주에 위리안치된 충암도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己卯諸賢手帖』(보물 1198호)에는 충암이 안처순에게 띄운 서간이 여럿 전한다. 다음은 1520년 1월 18일, 금산(錦山)에서 진도(珍島)로 이배(移配)되었을 때, 안처순에게 보낸 편지다.

    면 길까지 사람을 보내어 곤궁한 사람을 문안하고 또 몸을 보호할 물자까지 보내주시니, 친구의 두터운 정에 깊이 감사합니다. … 중략 … 성품이 본래 술을 좋아하거나 술에 의지해 곤궁한 시름을 떨치고 있으나 외딴섬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이 술입니다. 그대가 소주 두세 말을 빚어서 제가 죽기 전에 보내 준다면 평생의 큰 은혜 일 것입니다. 곤궁한 제 처지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의지할 것은 친구뿐입니다.<sup>19)</sup>

안처순의 우정과 배려가 충암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음이 이 편지를 통해 확인된다. 평소 음주를 즐기던 충암은 적객(謫客)의 고단한 심사를 술로 달랬는데 외딴섬에서 술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소주 두세 말을 빚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편지 말미에 적은 “의지할 것은 친구뿐입니다.”라는 말이 충암의 절박한 속내와 두 사람의 교분을 심분 대변한다.

다음은 남해(南海)에 유배된 김구가 1520년 2월 16일과 7월 13일에 안처순에게 띄운 편지의 일부다.

1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6), 『己卯名賢手筆 己卯名賢手帖』, 韓國簡札資料選集 10, p. 115. “遠路伴問窮人, 且送護資, 深謝故人厚情. … 중략 … 性本嗜酒而窮愁賴此消遣, 絕島最難得者此物. 君能烈煮燒酒數三斗, 及吾未死, 載送則平生大惠也. 窮途誰肯顧者, 所仗者友生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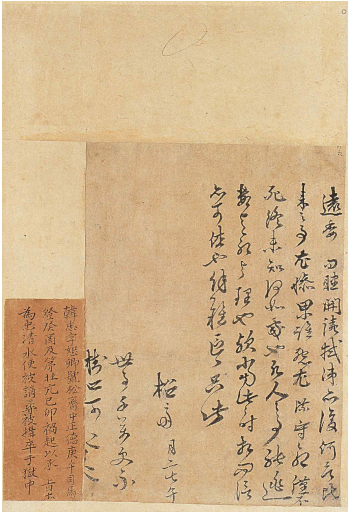
① 외딴섬의 외로운 죄수가 벗의 서신을 받으니 위로되는 마음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중략 … 바다를 향해하여 오신다는 기별을 지금 받았습니다. 저는 본래 기피해야 할 인물이므로 감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만, 자취를 감추어 오신다면야 굳이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출발해야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 중략 … 조석으로 필요한 물자를 보내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그대가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음식을 구차히 요구하겠습니까?<sup>20)</sup>

② 몹시 그리워하다가 안부 편지를 받으니 감사하고 위로되는 마음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여기에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 元沖(필자주: 金淨)과 子敬(필자주: 奇遵)의 일은 저도 들었습니다. 성상의 은혜에 감축하나 금번에 원충이 漢羅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끝없이 정신이 꺾이고 눈물이 흐릅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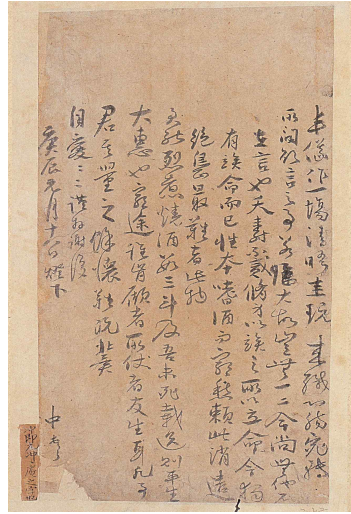
①에서 김구는 자신을 ‘기피해야 할 인물’[忌人]로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삼엄했던 정국과 기묘제현의 위축된 입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머잖아 남해로 찾아올 것이라는 안처순의 편지를 받고 나서 ①을 답장으로 보낸 것이다. 자취를 숨기고 찾아오되 심사숙고하여 출발하라는 당부는 당국자의 감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마저 감돈다. ②에서 말한 충암과 기준의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내는 것, 즉 감사정배(減死定配) 처분을 가리킨다. 김구는 외딴섬에 구금된 신세였지만 충암이 제주로 이배될 예정이라는 최근 소식까지 꿰고 있다. 기묘제현과 안처순은 간찰을 매개로 하여 개

2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6), p. 105. “絶嶼孤囚, 得奉故人音書, 慰豁如何勝言耶! … 중략 … 今承浮海之示, 柔本忌人, 不敢邀也, 潛迹來歸則亦不忍強拒也. 然可深慮慎發, 不可率爾. … 중략 … 惠朝夕資, 感感. 非君安敢苟求口資.”

2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6), p. 94. “苦懷得問, 感慰云何. 僕時不死此中. 沖·敬事, 我亦曾聞, 感祝天恩, 而今審沖移漢羅, 摧神乾啼, 曷有窮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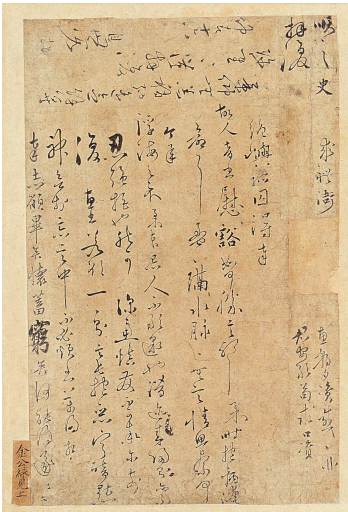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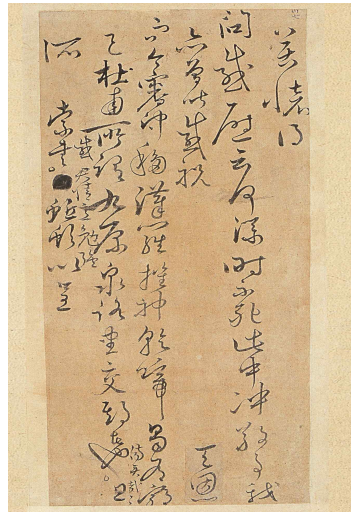


(右)

[그림 1] 1519년 12월 안처순에게 쓴 한충(韓忠)의 편지[左]와 1520년 정월에 쓴 충암(冲菴)의 편지[右]



(左)



(右)

[그림 2] 1520년 2월[左]과 7월[右]에 안처순에게 쓴 김구(金綬)의 편지

인적 안부뿐만 아니라 시국의 추이에 관한 정보까지 교환했고,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적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간찰에 딸려 보낸 것은 물론이다.

송재(松齋) 한충(韓忠, 1486-1521)은 기묘사화 때 거제(巨濟)로 유배 되고 2년 뒤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다가 옥중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1519년 12월 27일 적소(謫所)인 거제로 향하는 도중에 안처순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멀리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고 노자까지 주니 편지를 펼치자마자 눈물이 흐르거늘 다시 무슨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근래의 일은 더욱 참혹하니 과연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겠습니까! 저는 목숨을 부지하여 근근이 죽지 않고 있으나 끝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일이 운수와 천명과 이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는 서로 소식을 묻는 것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중략 … 세상일은 절대로 재차 입에 답아서는 안 됩니다.<sup>22)</sup>

안처순은 배소로 향하던 한충에게 인편을 통해 안부를 묻고 노자까지 챙겨주었다. 한충이 느끼던 참혹한 심사가 간찰 도처에 서려 있다. 특히 이러한 시국에는 안부 편지를 보내는 행위조차 삼가야 하고, 세상일을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한충의 언급에서 극도의 공포감이 느껴진다. 또 다른 편지에서 한충은 “긴 밤에 등불이 없어 잠들지 못하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작금의 괴로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는 인편이 있거든 들기름을 구해 보내주시고 울무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sup>23)</sup>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6), p. 93. “遠委問贖，開牘拭涕，亦復何言！比來之事尤慘，果誰怨尤。僕守命僅不死，終未知何如處也。凡人之事，能逃數與命與理也歟。當此之時，相問信亦可休也。… 중략 … 世事，千萬更不掛口，可也。”

2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6), p. 113. “長夜無燈，不眠獨坐，可任此間耶！如有來者，荏油覓付，意苒亦望料理。”



라고 유배 생활에 소용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기묘제 현과 안처순 간의 친밀한 교감과 신뢰가 행간에 묻어나거니와 사림 세력을 옥죄던 훈구파 주도 정국이 살벌하기 그지없다. 충암이 제주에서 제작한 시편에 대상 인물의 실체가 감춰진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 3.2. 세한지교(歲寒之交)의 감춰진 이름들

제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충암은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에 이르렀다. 나락으로 떨어진 작금의 처지에 괴로움을 금치 못했고, 그의 심경을 대변이나 하듯 술에 흠뻑 취한 채 자신의 회한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조렸다.<sup>24)</sup> 이즈음까지 충암이 ‘君’이라 일컫던 자가 동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되돌아가는 그를 전송하는 시편에서 “역 정자에서 이별하는 날은, 바다로 멀리 떠나는 때라.”(驛亭分袂日, 溟海遠征時)<sup>25)</sup>, “그대에게 흰 달 주고 나서, 하늘 끝에서 그리움 부치겠소.”(贈君皎明月, 天末寄相思)<sup>26)</sup>라 말하더니, “그대 전송하던 곳을 돌아보니, 아득히 바다 해 어둑하구려. 내 고향집을 응당 지날 텐데, 꽃은 지고 사립문은 닫혀 있겠지.”(回首送君處, 蒼茫海日昏. 家山應見過, 花落掩柴門)라 노래했다.<sup>27)</sup> 작품의 대상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제나 문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그대[君]’라고 막연하게 칭할 뿐이다.

1520년 8월 21일, 충암은 제주 적소에 도착했다. 14개월 뒤, 즉 이듬해 10월 30일에 사사될 운명이라는 것을 충암이 알 리가 없다. 다만 “고개 들어 바라보면 여전히 일월이 떠 있는데, 두 눈에 들어오는 건 온통 바다 파도뿐.”(舉頭猶日月, 入眼盡溟濤)<sup>28)</sup>인 적막한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

24) <渡碧波口號> 【海渡亭名. 拿來時, 泥醉號】.

25) <驛亭別> · 其一 기구와 승구.

26) <驛亭別> · 其二 전구와 결구.

27) <贈別>.

았다. 그나마 동생 김이(金易)와 노복 한 명이 동행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지만 제주까지 함께 왔던 아우가 20일 남짓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天畔羈懷切	하늘 끝에서 나그네 회포 애뜻한데
分携葉脫初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헤어지다니.
汝歸應拜母	너는 돌아가면 모친을 배알할 테요
兄住尙思吾	형도 그곳에 머물며 날 그리워하리.
骨肉空幽夢	골육이 공연히 근심스런 꿈을 꾸고
親知各塞隅	친지가 각각 변세에 떨어져 있다니.
海山瞻皎月	바다와 산에서 밝은 달이 보일 테니
風雨愼征途	비바람 몰아치는 먼 길 조심하려무나.

<아우에게 주며 작별하다> 【윤8월 9일】<sup>29)</sup>

가득이나 허전함을 주체하기 어려운데 조락의 계절에 다시 만날 기약 없이 혈육과 떨어지자니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 충암의 상실감은 동생 김이와 형 김광(金光), 모친을 일일이 언급하는 함련에서 십분 배가된다. 미련에서 볼 수 있듯이 충암과 그리움의 대상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는 하늘에 떠 있는 달뿐이다. 외딴섬에서 동생마저 훌쩍 떠나자 충암의 외로움은 커져만 갔다. 꿈속에서조차 배소의 풍광은 삭막한 변방과 다름없었다. 이제는 노복을 형제처럼 여기면서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sup>30)</sup>

『詩經』, 「衛風, 河廣」에 “누가 하수가 넓다고 말하는가? 일엽편주로 건널 수 있는 걸.”(誰謂河廣, 一葦杭之)이라는 시구가 있다. 이 시구를 읽으며 위안을 찾고 싶었으나, 정작 자신은 돌아가 길이 막막했다. 이에 “눈은 외로운 새를 뚫어지듯 바라보고, 그리움은 조각구름을 쫓아 의지

28) <一撮> 【八月二十一日 到濟州後】 함련.

29) <贈弟別> 【閏八月九日】.

30) <絶國> 함련. “夢如關塞近, 僅作弟兄依.”

하네. 일엽편주가 어찌 멀까마는, 먼 곳의 나는 돌아가지 못하네.”(眼穿孤鳥盡, 思逐片雲依. 一葦豈云遠, 人遐自未歸)<sup>31)</sup>라 뉘드리할 수밖에 없다. 다소 상투적인 ‘새’와 ‘구름’이 충암의 제주 시편에 자주 보이는데, 이것은 ‘달’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그리움의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공자는 세상이 혼탁해지자 구이(九夷)에 살고자 했다. 주변 사람이 그곳의 누추함을 염려하자 “군자가 살게 되면 어찌 더러울 것이 있겠는가!”라 단언했다. 충암도 이 말을 곱씹으면서 “무엇이 더럽겠냐는 공자의 뜻과 같다면, 도깨비와도 무리지어 다닐 만하리라.”(如同何陋志, 魑魅足群行)<sup>32)</sup>, “뗏목에 오른 성현의 탄식을 깊이 새기며, 끝내 오랑캐 거처를 더럽게 여기지 않으리라.”(乘桴潛聖歎, 終不陋蠻居)<sup>33)</sup>라고 마음을 다졌다. 하지만 문득문득 고개를 드는 수심은 억누를 길이 없었다. 이에 벗이 지은 시편을 꺼내 읽으며 그 운을 밝아 자신의 속내를 토로하기도 했다.

地偏炎徼春歸早  
天盡南溟雁到遲  
荏苒星霜隨客夢  
蕭條心事見君詩

땅 끝의 무더운 곳이라 봄도 일찍 가고  
하늘 끝 남방이라 기러기도 더디게 오네.  
시간은 나그네 꿈속에서도 덧없이 흐르기에  
쓸쓸한 심사로 그대의 시편을 보네.

<이덕옹(李德翁) 시에 화운하다> · 其一<sup>34)</sup>

남방의 기후와 풍토를 언급하더니 쓸쓸한 심사로 벗의 시편을 꺼내 읽고 있다. 세 번째 시구에서 말했듯이 꿈속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이 흐르는 터라 벗의 얼굴조차 희미하므로 시편을 대신 보는 것이다. 이 시의 제목

31) <晚望> 경련과 미련.

32) <去國> 미련.

33) <積水> 미련.

34) <和李德翁> · 其一.

은 <和李德翁>이고, 그 다음에 차제된 시편은 <和李德優>이다. 이덕옹(李德翁)과 이덕우(李德優)는 누구일까? 추정컨대 이미 고인이 된 안정(安亭) 신영희(辛永禧)를 지칭하는 듯하다. 신영희의 자는 덕우(德優), 또는 덕옹(德翁)이다. 성씨를 ‘辛’에서 ‘李’로 바꿔 쓴 것은 연좌의 재앙이 행여 신영희 집안에 미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리라. 충암은 1510년 직후에 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를 역임하면서 나이 차가 40년이 넘는 신영희와 망년지우를 맺었고 당시 여러 편의 시편을 주고받았다.<sup>35)</sup> <남산시> 주석 가운데 “당시 辛世瑚와 辛世璉이 노모를 위해 형제가 함께 수령을 요구하여 온양군수와 먼천군수가 되었다. 壽宴에서 安亭 辛德優가 <남산시>를 지어 찬미했다.”<sup>36)</sup>가 보인다.<sup>37)</sup> <和李德優> 시는 다음과 같다.

炎洲沒鯨浪	무더운 섬은 큰 파도에 잠길 듯하고
瘴雲蒸曉昏	덥고 습한 기운이 밤낮으로 폭폭 찌네.
餘生伴魍魅	변방에 유배된 채 여생을 살아야 하니
遠客任乾坤	<u>먼 나그네는 천지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u>

<이덕우(李德優) 시에 화운하다><sup>38)</sup>

전반부에서 ‘무더운 남방의 섬’[炎洲], ‘장기’[瘴雲], ‘큰 파도’[鯨浪]라는 소재를 ‘가라앉다’[沒], ‘찌다’[蒸]라는 술어와 결합함으로써 유형지

35) 『충암집』 권1에 <細雨寄德優>, <秋興十首, 病中作, 示夢與明府, 兼柬安亭>, <南山詩>, <靑龍寺, 次德優韻> 등이 보이고, 권2에 <德翁知余難別之色, 健僕駿馬, 犯夜馱致之, 爲愧厚情, 作小絕> 등이 보인다.

36) 『충암집』 권1, <南山詩>【時辛氏世瑚·世璉爲母老, 兄弟俱乞郡, 出守溫陽·沔川. 於其壽席, 安亭辛德優賦山海之篇以美之, 故云.】 신세호(辛世瑚)와 신세련(辛世璉)은 신영희의 조카이다.

37) 이때 충암과 가깝게 교류했던 인물은 안정 신영희를 위시하여 몽여 연구령(夢與延九齡), 월영 박이홍(月影 朴以洪) 등이다.

38) <和李德優>.

의 열악한 환경을 묘사했고, 후반부에서는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체념의 어조로 말했다. “천지에 맡기노라”[任乾坤]는 “어찌 장자의 수레가 올라! 돌아가 늙으며 천지에 맡겨야지.”(寧紆長者轍, 歸老任乾坤)라는 두보(杜甫)의 시구를 연상케 한다.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덕우(李德優), 즉 신영희의 시편에 화운한 것이다. 신영희 시편은 충암이 아래 작품을 읊조렸을 때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三人促膝語黃昏	저물녘 세 명이 무릎 맞대고 이야기하다가
脈脈相看各斷魂	애끓는 심정으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네.
明日天涯揮手去	내일이면 손을 흔들며 하늘 끝으로 떠날 터
浮生南北任乾坤	남북으로 떨어진 채 천지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벗들과 함께 옛일을 말하다가 즉흥적으로 읊조리다><sup>39)</sup>

충암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신영희도 차운작을 제작했을 터이고, 충암은 제주로 향하면서 신영희 시편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위 시에서 말한 세 사람은 충암과 몽여(夢輿) 연구령(延九齡), 안정(安亭) 신영희(辛永禧)이다.<sup>40)</sup> 충암은 이별을 목전에 둔 심정을 애뜻하게 표현한 뒤, 남북으로 떨어진 채 천지에 운명을 맡기겠노라고 말하며 시편을 마무리했다. 평성(平聲) 원운(元韻)을 운자로 사용한 것도 동일하거나와 마지막 구에서 ‘任乾坤’이라 말한 점도 대동소이하다. ‘浮生南北’을 ‘遠客’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충암은 절해고도에서 적막함을 달래기 위해 죽은 벗의 영혼을 소환하듯이 고인이 된 신영희의 시편을 읽었고 또 거기에 차운한 것이다. 전술했듯이 성씨를 바꿔 쓴 것은 신영희 집안에 화가 미칠까 염려했

39) 『冲菴集』 권1, <與友話舊口號>.

40) <與友話舊口號> 전후에 연구령, 신영희와 주고받은 시편이 산재해 있거니와, 그 아래에 차제된 <秋興十首, 病中作, 示夢輿明府, 兼柬安亭>에는 충암의 오언율시 10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의 차운시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기 때문이리라.

아래 작품은 1521년 3월에 지은 것이다. 이 시 역시 대상 인물이 모호하게 표기되었거니와 그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

炎州天欲盡	하늘이 끝날 듯한 무더운 고을에서
舉目絕朋儔	이리저리 둘러봐도 벗이라곤 전혀 없구나.
飛越千重浪	<u>천 겹 파도를 훌쩍 넘어와서</u>
來看萬里囚	<u>만 리 죄수를 찾아와 보다니.</u>
將歸正春暮	<u>봄이 저물 때 장차 돌아가려 하니</u>
失路更離愁	<u>이별 걱정으로 길을 잃을 지경이네.</u>
相望南溟岸	남쪽 바닷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遙心逐去舟	그리운 마음은 떠나는 배를 쫓아가네.

<안자(安子)에게 주며 작별하다>41)

제주는 천애이역(天涯異域)과 다름없으므로 눈을 씻고 보아도 벗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천만 이랑의 파도를 무릅쓰고 제주까지 천극(楸棘)의 죄인을 찾아왔다. 해후의 기쁨과 함께한 시간들은 과감히 생략한 채 이별의 고통을 곧바로 얘기했다. 봄이 저물 무렵, 벗은 끝내 물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벗은 해안에 우두커니 서 있는 충암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충암은 선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벗을 응시한다. 서로가 한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한시의 기교나 수식은 안중에도 없다. 평이한 시어와 구법으로 담백하게 써 내려갈 뿐이다. 마지막 연의 “그리운 마음이 떠나가는 배를 쫓아간다.”는 술회가 커다란 울림을 준다.

그렇다면 죄인 충암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넌 벗(朋儔)은 누구일까? 위 작품의 시제는 <安子에게 주며 작별하다>이다. 그 벗은 바로

41) <贈別安子>.

안자(安子)이다. 한시의 제목은 작품 창작의 배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시제의 글자에 따라 전편에 걸쳐 시상이 긴밀하게 조직되고 승접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작품의 대상을 ‘안자’라고 막연하게 지칭했다. 통상 성씨 뒤에 ‘子’ 자를 붙여 선생이란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 여기서의 ‘안자’는 그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다른 시편에서 ‘辛德優’를 ‘李德優’라 적은 경우와 정반대로, 이 시에서는 자호(字號) 등의 구체적 호칭은 생략하고 ‘安’이라는 성씨만 남겨 두었다. 『충암집』에 수록된 작품 전체를 일람했을 때, 충암과 더불어 시문(詩文)을 수수한 인물 중에 성씨가 안(安)인 사람은 안처순(安處順)이 유일하다.<sup>42)</sup> 더욱이 기묘제현을 향한 안처순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 등을 감안한다면 ‘안자’가 안처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유독 유배 시절에 지은 시편 가운데 시제가 불완전한 작품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 사림 세력에 대한 훈구파의 공격은 서슬이 퍼랬다. 사소한 혐의만 감지되어도 탄압과 숙청이 자행되던 시절이었다. 기묘제현과 교유했던 일부 사람들은 당정자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기묘제현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이 1601년 『기묘제현수첩』에 쓴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시간 뒷부분의 호칭은 혹은 字를 썼고 혹은 號를 썼다. 더러는 은폐하거나 생략하여 사람들이 언뜻 보았을 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다.<sup>43)</sup>

42) 『충암집』 권1, <送安順之求禮任>; 『충암집』 권5, <奉復安求禮>, <順之奉復>, <順之拜復> 등. 『己卯諸賢手帖』과 『己卯諸賢手筆』에도 충암의 한시와 간찰이 다수 남아 있다.

43) 韓浚謙, 『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簡尾之稱, 或字或號, 間有祕略, 使人驟見, 將不能易解.”

『기묘제현수첩』의 존재와 가치를 한양에 처음 소개한 것은 한준겸이다.<sup>44)</sup> 한준겸의 견해에 따르면 기묘제현과 안처순이 수수한 서간 중에 찬자가 분명치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호칭을 숨기거나 생략함으로써 당정자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충암이 적소에서 지은 시편 가운데 대상 인물이 감춰지거나 왜곡된 경우가 자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도록」에 안처순과의 수창시가 보이지 않고 전송시에서도 그 호칭을 모호하게 적은 것이다. 자칫 훈구파의 감시망에 포착된다면 역적의 동당이란 낙인표가 찍힌 채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가 초토화되기 때문이다.

1521년 가을, 월간(月澗)<sup>45)</sup>이란 승려가 충암에게 시를 구하기 위해 경산(京山)에서 출발하여 제주까지 바다를 건너왔다. 아래 시는 이때 작성한 <중의 시축에 제하다>이다.

杖錫秋風渡海洋	가을바람에 석장을 짊고 바다 건너와서
黃柑白酒沃枯腸	황감과 백주로 마른 창자를 적셔주었지.
孤生殘命誰相問	그 누가 이내 쇠잔한 목숨을 위로할까?
此別還添兩鬢霜	이렇게 이별하니 흰머리가 더 늘어나네.

文章當世定無前	당대 문장가 중에 더 뛰어난 자 없거늘
挾貴還羞不下賢	부끄럽게도 지위를 믿고 현인을 공경치 않았구나.
蠱九才名知可鎮	재주와 명성 갖춘 재야 선비로 可鎮만을 알았으니
會須謝也井觀天	응당 우물에서 하늘 본 것을 사과해야지.

<중의 시축에 제하다><sup>46)</sup>

44) 『己卯諸賢手帖』과 『己卯諸賢手筆』의 유전과 확산 과정, 두 첩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 등은 김덕수(2016),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과 확산」, 『정신문화연구』 14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04-235 참조.

45) 『충암집』 주석에 의하면 승려의 법명이 ‘月侃’이나, 여타 문헌에 모두 ‘月澗’으로 기록되어 있고, ‘月侃’의 의미가 승려의 법명과 어울리지 않는바, 본고에서는 월간(月澗)으로 비정하여 기술하겠다.



전술했듯이 이 시는 당질 김천우가 충암 사후에 전문(傳聞)을 통해 따로 수습한 것인데, 증손 김성발이 자신이 견문한 내용을 참조하여 작품 제작 경위를 주석에 새로 적은 작품이다. 첫 번째 시는 황감과 백주를 가지고 찾아온 월간과의 만남과 이별을 함께 노래했다.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의 여생을 예감하듯 “그 누가 이내 쇠잔한 목숨을 위로할까?”라 탄식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돌아가는 월간을 통해 구헌(龜軒) 신명인(申命仁)에게 부친 것이다. 월간은 찾아오자마자 소매에서 시축을 꺼내 바쳤다. 시축을 펼쳐 읽던 충암은 절구 한 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두세 번 반복해서 읊조렸다. 바로 신명인의 솜씨였다. 그간 지위를 믿고 신명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자신의 오만함과 그의 재주를 진작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편협한 안목에 대해 충암은 한시를 빌어 사과하고 있다. 세 번째 시구, “재주와 명성 갖춘 재야 선비로 가진(可鎭)만을 알았으니”(蠹九才名知可鎭)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주석의 풀이대로 예전에 가진(可鎭) 최수성(崔壽城)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서 신명인 뿐만 아니라 충암과 동문수학했던 최수성까지 모두 추허(推許)한다는 뜻이 된다. 둘째는 “재주와 명성 갖춘 재야 선비를 능히 압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때 ‘可鎭’은 ‘진압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결국 신명인을 최고의 재야 시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당시 시축에 수록되어 있던 신명인의 작품은 아래와 같다.

松窓岑寂日西遲	소나무 창 고평하고 해는 서편으로 누엿누엿
世路風波不自知	세상길에 이는 풍파일랑 나는 알지 못하네.
一壑清川鳴歷耳	온 골짜기의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귓가를 스치기에

46) <題僧軸>. 전술했듯이 초간본에는 “此下皆傳聞而不在錄中.”이라는 주석만 있었으나, 중간본에서 본 주석을 삭제한 뒤, 시제 밑과 작품 말미에 각각 “僧名月侃, 自京山渡海索詩云.”과 “軸上有申命仁詩. 作此絕, 因僧寄之. 可鎭崔壽城字也.”라는 주석을 달았다.

蒲團坐到月明時      휘영청 달 밝을 때까지 부들방석에 앉아 있노라.<sup>47)</sup>

신명인은 충암의 지우인 김식(金湜)의 수제자였으며 타고난 시인이었다. 시상을 엮기 위해 고심하지 않고 순식간에 써 내려가도 영롱한 시편이 완성되었다. 그는 또 의로운 선비였다.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천여명의 성균관유생을 이끌고 구명 상소를 올린 것도 그였고, 스승 김식이 거창에서 자결하자 그 시신을 충주로 모셔와 장사지낸 것도 그였다.<sup>48)</sup> 위 시편의 주인공은 낙락장송처럼 굳세고 고결하다. 세상일에 패념치 않은 채 자연에 동화되어 하나가 되었다. 첫째, 셋째, 넷째 구에서 경물을 산뜻하게 묘사했는데 그 경물 속에는 주인공의 고고한 정신세계가 투영되어 있다. 그 주인공은 신명인 본인이기도 하고, 제주에 갇힌 충암이기도 하다. 이 시편을 보자마자 신명인의 속내를 일견에 간파했으므로 월간 편에 화답의 시편을 보낸 것이다.

우리안치 죄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던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다면 승려 월간이 그저 시편을 받기 위해 바다를 건너 제주 적소까지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월간이 가져간 시축과 바랑에는 신명인과 최수성 등이 띄운 시편과 편지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을 것이다. 삼성(參星)과 상성(商星)처럼 아득히 떨어져 있는 이들은 승려 월간과 짝맞은 한시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편의 외형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 인용문은 <충암선생연보>의 ‘경진년(1520)’조에 주석의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다. 충암이 8월 21일 제주에 도착하고 열흘 남짓 되었을 때 누군가가 충암의 적소로 찾아왔다.

47) 安踞, 『己卯錄補遺』 卷下, <申命仁傳>. “山人月澗求詩於公, 公書一絕於詩軸曰, … 인용 한시 … 澗欲求冲菴詩, 渡海入濟州. 持柑子壺酒往訪, 袖詩軸以進. 冲菴披閱, 獨於此絕, 吟咏再三, 乃問作者, 澗對以姓名, 冲菴嘆賞不已, 遂題二絕於詩軸而還之.”

48) 李廷馨, 『知退堂集』 권12, 「黃兔記事上」, <布衣申命仁> 【八賢】.

『濟州日記』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선생이 적소에 도착하고 나서 10여 일 동안 비몽사몽 상태였는데,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찾아오더니 “자네와 서로 만난 지 오래되었으나 문장이 어떤지 알지 못하니 한 편을 감상하고 싶소.”라고 부탁했다. 선생이 “하늘 끝에서 귀양살이하는 처지이거늘, 어찌 한 글자라도 가져온 것이 있겠습니까!”라 대답했다. 노인이韻을 떼어 시험하려 했지만 선생은 따르려 하지 않았다. 노인은 “聯句로 읊조리는 것도 괜찮겠소.”라 말하더니 곧장 첫 구를 읊으며 재촉했다. “거문고는 무릎 위에서 우네.”에 이르자 노인은 깜짝 놀라면서 “詩格이 옛 법도에 의지하고 있구려.”라 말하더니 한참을 음미하다가 홀연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시는 이렇다.

積雨初晴後 【노인】	장맛비가 막 개이자
新涼樹梢生 【선생】	한기가 가지 끝에 감돌기 시작하네.
夜深幽戶靜 【노인】	밤이 깊으니 그윽한 집이 더욱 고요하고
月近小窓明 【선생】	달이 가까우니 자그만 창이 밝기도 하다.
詩自枕邊得 【노인】	시상은 베갯머리에서 떠오르고
琴從膝上鳴 【선생】	거문고는 무릎 위에서 우는구나.
此間清意味 【노인】	이즈음의 청아한 의미를
難與俗人評 【선생】	속된 사람과는 논하기 어렵지. <sup>49)</sup>

위 일화는 충암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일기』에 수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흰 옷 입은 노인’은 누구일까?

49) 『冲菴先生年譜』上, ‘庚辰年’조. “按『濟州日記』曰, 先生到謫所十許日, 似夢非夢. 有白衣老人來致談曰, ‘與子相見久矣, 不知文章之如何, 願賞一篇.’ 先生答以流落天涯, 焉有一字隨來者. 老人欲以韻試, 先生不肯. 老人曰, ‘可與聯句.’ 卽呼首句以促之, 先生不得已勉應之, 至‘琴從膝上鳴’, 老人驚曰, ‘詩格依舊.’ 吟玩良久, 因忽不見云.” 詩曰, ‘積雨初晴後【老人】, 新涼樹梢生【先生】. 夜深幽戶靜【老人】, 月近小窓明【先生】. 詩自枕邊得【老人】, 琴從膝上鳴【先生】. 此間清意味【老人】, 難與俗人評【先生】.” 여기 실린 연구시(聯句詩)도 충암의 제주 유배 한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제주라는 궁벽진 곳에서 대역 죄인의 적소를 찾아와 느닷없이 시문을 보여 달라며 요청하고, 심지어 연구(聯句)라는 작시의 형태로 선창(先唱)한 것일까? 그 노인이 병조판서를 역임했던 충암을 ‘자네[子]’라는 호칭으로 부른 점과 “자네와 서로 만난 지 오래되었으나 문장이 어떤지 알지 못하니 한 편을 감상하고 싶소.”라고 말한 점, 노인과 충암 두 사람이 능숙하게 시구를 주고받은 점은 주목을 요한다.

여러 문헌을 상고해 보건대 당시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람은 충암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충암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되고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연구시를 선창하여 단박에 시를 완성할 만한 인물은 통상 정3품 문관이 부임하는 제주목사 정도로 그 범주를 축소할 수 있다. 당시 제주목사는 이윤번(李允蕃)이었는데 2년 전인 1518년(중종 13) 4월에 부임했다가 1520년 8월에 체직되었다. 『선생안』에 따르면 이윤번의 후임자 이운(李耘)은 1520년 9월에 부임한 뒤 1523년 3월까지 근무했다. 당시 1520년 8월에 윤달이 들었으므로 이운이 제주에 도착하려면 여전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한편 무과 출신인 진세인(秦世仁)이 1520년부터 1523년까지 제주판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 이상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무반 관원인 진세인이 이 ‘노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표 4] 충암 제주 유배 시 제주목(濟州牧) 지방관

성명(생몰년)	소과 입격	대과 급제	관직 및 근무 기간
이윤번 (李允蕃, 1460-1539)	1480년 진사시 2등 4위(9/100)	1492년 병과 19위	제주목사 1518. 4 ~ 1520. 8
이운 (李耘, 1469-1535)	1495년 진사시 3등 2위(32/100)	1501년 병과 13위	제주목사 1520. 9 ~ 1523. 3
김정 (金淨, 1486-1521)	1504년 생원시 2등 7위(12/100)	1507년 장원	
진세인(秦世仁)	1507년 무과		제주판관 1520. 4 ~ 1523. 1

따라서 흰 옷 차림으로 충암을 찾아온 인물은 이윤번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체직 시점에 후임자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유배객으로 제주에 위리안치된 충암을 방문한 것이다. 14세에 별시 초시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19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3년 뒤 문과 장원을 거머쥐고 다시 1년 뒤 정시(庭試)에서 장원하고 20대에 두 차례나 사가독서(賜暇讀書)에 피선되었던<sup>50)</sup> 충암의 필력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충암이 늘재(訥齋) 박상(朴祥)과 함께 당시(唐詩)와 진한고문(秦漢古文)을 전범으로 삼으며 기건(奇健)한 풍격을 숭상했다는 사실<sup>51)</sup>은 당시 조정에 있던 관료라면 누구나 익히 들어왔던 터였다. 무엇보다 서른넷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조 판서로서 육경의 반열에 오른 충암의 솜씨를 목도하고 싶어서 평상복 차림으로 적소를 찾았을 것이다.

이윤번도 소식적 제술(製述)에 힘써 진사시에서 2등 4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바, 적어도 한시 제작에 관해서는 남다른 자부심을 지녔을 터이다. 이에 충암의 시문을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필력을 겨뤄 보고 싶었다. 시구를 두 번씩 주고받다가 이윤번은 “시상은 베갯머리에서 떠오르고”(詩自枕邊得)라 읊조리면서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충암의 작시 능력은 명실이 상부했다. 이윤번의 시구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문고는 무릎 위에서 울고 있구나.”(琴從膝上鳴)라고 대구를 조직했다. 대우가 공교롭거니와 은자의 청아한 삶을 적실하게 표현했기에 충암의 필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보>에서는 한참을 음미하다가 홀연 사라졌다고 했으나 실제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수

50) 『冲菴先生年譜』上.

51) 『冲菴先生年譜』下, 부록, <諸家記述>. “己卯年, 冲庵·訥齋諸公, 詩尙盛唐, 文尙西京. 如金承旨絳·奇典翰遵與其儕輩, 皆以冲庵·訥齋爲師友. 諸公遭禍, 李荇典文, 欲改詩文之舊. 凡監試文科, 皆取平平之文, 少涉奇健則輒黜之. 月課取舍亦如之. 自是文體日下.”; “文追西漢, 詩學盛唐, 世之稱談先生, 而恐不足以盡先生之蘊也.”; “尹根壽, 『月汀先生別集』 권4, <漫錄>. “己卯諸賢, 一時之論, 以爲文則法漢, 書則法晉, 詩則學唐, 人物則當以宋諸儒爲準.”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암은 그날의 일을 일기에 기록하면서 제주목사 이윤번을 ‘흰 옷 입은 노인’이라 적음으로써 후시 모를 후환에 대비했다.

**故人**知**我**意

斗酒慰窮愁  
窮愁問何如  
禦魅爲孤囚  
絕國隔天海  
親知緬悠悠  
一醉當萱草  
囊罄餅疊羞  
披書展緘封  
忽若神所謀  
意重雙璧贈  
未嘗憂先瘳  
酌以紅甲螺  
清如露凝秋  
流霞慙薄味  
肯數平原郵  
快傾便開襟  
天地同浮漚  
與君雖兩地  
醉鄉通神遊  
壺中可藏眞  
何用尋蓬丘  
感愧**故人**恩  
窮途不**我**驕  
瓊琚諒難投  
唯將木瓜酬

벗이 내 뜻을 알아주어

한 말 술로 곤궁한 근심 위로하네.  
곤궁한 근심은 어째서인가?  
변방에 유배되어 외로이 갇혔기 때문이지.  
외딴곳이 하늘과 바다에 막혀 있으니  
친척과 벗이 그림기 그지없구나.  
한 번 취해야 근심일랑 잊을 텐데  
부끄럽게도 빈 술병의 빈틸터리 신세로다.  
편지를 펼치고 포장을 뜯자  
귀신이 피를 부린 듯 신기하구나.  
깊은 배려로 두 가지 보배를 주니  
얕은 적이 없는 듯 벌써 나왔다네.  
붉은 껍질 소라에 술을 따르자  
가을 이슬이 맺힌 듯 맑기도 하다.  
유하주도 맛없어 부끄러울 정도이니  
보잘것없는 술 따위와 어찌 견줄까!  
서둘러 기울이자 흥금이 탁 트이고  
세상만사가 물거품과 다름없구나.  
비록 그대와 다른 곳에 있지만  
취향에서 정신이 함께 노니노라.  
술병 속에 참됨이 감추어 있거늘  
어찌 구태여 봉래산을 찾으리오!  
벗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건  
곤궁한 나를 추하게 여기지 않기애.  
아름다운 시편을 보내기가 어렵기에  
그저 하찮은 시구로써 보답할 따름이네.

<추로주(秋露酒)를 보내준 이자번(李子蕃)에게 사례하며 급히 쓰다>>52)

어느 벗이 충암의 속내를 아는지 추로주 한 말을 빚어서 보내주었다. 곤궁한 시름을 달래라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충암은 벗의 후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오언고시 26구를 급하게 써서 기다리던 인편에게 부쳤다. 술을 보내준 사실부터 근심의 연원, 술조차 살 수 없는 처지, 편지와 추로주 포장을 펼치는 장면, 추로주의 맛과 효능, 취향(醉鄉)의 경지와 술에 대한 예찬, 벗과의 신교(神交)와 감사의 뜻, 자기 작품에 대한 겸사 등의 순으로 시상을 엮었다. 잠시나마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한바탕 거나하게 취하는 것인데 주머니가 텅 비어 술을 살 돈이 없다. 이때 이자번(李子蕃)이란 벗이 인편을 통해 멀리 제주까지 추로주를 보내주었다. 추로주는 가을 이슬이 흠뻑 내릴 때 그 이슬을 받아서 빚은 고급술이다. 이 술을 홍갑라(紅甲螺), 즉 껍질이 붉은 소라잔에 따라 들이키자, 언제 앓았냐는 듯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의 근심이 포말처럼 사라진다.

위 시편 중에 자신을 지칭하는 ‘나[我]’와 상대의 호칭인 ‘그대[君]’, ‘벗[故人]’이 도합 다섯 번 나온다. 심지어 시제에는 ‘李子蕃’이라는 실명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이자번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비록 그대와 다른 곳에 있지만”(與君雖兩地)이라는 시구를 통해 벗이 내륙에 살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 여기서도 이자번은 상대의 실명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충암은 상대의 성씨를 바꾸어 쓰거나, 혹은 자호와 이름은 빼 버린 채 성씨에 의존명사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했다.<sup>52)</sup> 내륙의 지인과 접촉한 경우에는 예외가 없다. 필자는 이 작품도 그러한 실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 시의 대상 인물이 얼마 전 제주목사에서 체직된 이윤번(李允蕃)이라고 여긴

52) <謝李子蕃送秋露, 走書>.

53) 예컨대 충암이 상대의 편지를 받고 답장의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 <濟州風土錄>인데 이 글에도 상대의 호칭인 ‘君’이 여섯 차례 나올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정할 길이 없다.

다. 각종 고문헌 DB를 검색했을 때, 조선 전기에 자번(子蕃)이란 이름이나 자호(字號)를 사용한 인물은 송자번(宋子蕃)이란 자가 유일하거나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이(李)씨 성을 가진 사람 중에 자(字)나 이름이 자번인 자는 숙종 연간에 김춘택(金春澤)과 교유했던 석곡(石谷) 이천무(李天茂)가 유일하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충암을 위시하여 여타 기묘제현과 접촉한 적이 없다. 더욱이 『충암집』에 수록된 인물 중에 이름이나 자호에 ‘蕃’ 자가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번이란 세 글자에서 가운데 글자만 바꾸어 ‘이자번’으로 쓴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적어도 이자번이 충암 벗의 실명이 아닌 점은 확실한 듯하다.

충암이 사사된 지 20여 년이 지나 기묘제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1545년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신원되었다. 아래 인용문은 『충암집』 서문의 일부로서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이 찬술한 것이다.

28~29년 후, 충암의 당질 김천우 군이 홍문관 응교가 되었다. 어느 날 충암의 유고 시문 약간을 가져와 내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우리 숙부 元沖公은 소싯적부터 문장이 매우 뛰어났고 또 학문을 좋아하여 조예가 더욱 깊었기에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죄의 그물에 빠지게 되자, 일찍이 인구에 회자되던 시문이 도리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도구로 귀착되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라 했다.<sup>54)</sup>

김천우가 신광한에게 충암 유고의 산정과 편차를 부탁하며 말을 꺼내는 장면이다. “원충공이 죄의 그물에 빠지게 되자, 일찍이 인구에 회자되

54) 申光漢, 『企齋文集』 권1, 序, <沖菴集序>. “後二十八九年間, 有侯之堂姪金君天宇者, 爲玉堂應教. 一日, 持侯之遺稿詩若文來示余曰, ‘吾叔父元沖公, 自在妙年, 文章甚高, 又好學文, 所造尤深, 大爲縉紳所推服, 而身陷於罪罟, 曾爲膾炙之詩文, 反歸於目動心懼之具, 豈不惜哉!’”



던 시문이 도리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도구로 귀착되었다.”는 언급은 충암을 위시하여 기묘제현과 그 주변 인물들이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던 서슬 퍼런 당대 분위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충암과 수수했던 시문이 역모 동조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한시 한 편으로 필화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바, 끝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도구로 전략해 버린 것이다. 충암이 제주에서 제작한 시문에 대상 인물이 왜곡되거나 감춰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4. 결론

충암이 제주에서 14개월 동안 지은 시편이 「해도록」에 실려 있다. 『충암집』 초간본(1552년)을 간행할 때 공주목사 허백기(許伯琦)가 수습한 유고는 외집(外集)에, 당질 김천우(金天宇)가 수습한 전고(全稿)는 본집(本集)에 편차되었다. 물론 「해도록」은 본집에 포함되었다. 중간본(1636년)은 증손 김성발(金聲發)이 간행했는데 외집 수록 시편을 제작 시기에 따라 본집 속에 수렴했다. 초간본과 중간본을 검토했을 때, 충암의 제주 시편이 처음부터 「해도록」이란 시록에 묶였고 「해도록」이 초간본 간행 직전까지 존재했다는 점, 두 차례 간행을 거치며 주석이 가감되거나 작품의 소종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충암의 초고 한시 가운데 애초에 제목이 달리지 않은 작품이 다수 있었다는 점, 충암의 저술로 추정되는 『제주일기』가 <충암선생연보> 찬술 시점까지 실재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훈구파의 서슬 퍼런 감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제(思齊) 안처순(安處順)은 기묘사화 직후에 기묘제현의 적소(謫所)까지 몸소 찾아가 벗들을 위로했다. 능주(綾州)와 남해(南海)로 유배 간 조광조(趙光祖)와 김구(金絿)를 방문했으며 이밖에 남쪽으로 유배 간 모든 벗들을 찾아가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기묘제현수첩』에 수록된 기묘제현의 서간을 통해 당시 삼엄했던 정국과 기묘제현의 위축된 입지, 간찰을 매개로 시국에 관한 정보까지 전달해 준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충암의 제주 시편에는 대상 인물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덕우(德優) 신영희(辛永禧)의 시에 차운한 뒤 제목에는 성씨를 바꾸어 이덕우(李德優)라 적었고, 제주까지 직접 찾아온 안처순을 전송하는 작품에서는 자호(字號) 등의 구체적 호칭은 생략한 채 안자(安子)라고만 적었다. 또한 승려 월간(月澗)을 통해 짚막한 시편으로 신명인(申命仁)과 서로의 속내를 전했고, 제주목사 이운변(李允蕃)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며 연구시(聯句詩)까지 주고받았다. 하지만 대상 인물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충암의 제주 시편 중에 대상 인물이 감춰지거나 왜곡된 경우가 자주 보이는 것은 자칫 훈구파의 감시망에 포착된다면 역적의 동당이란 낙인표가 찍힌 채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가 초토화되기 때문이다. “원충공이 죄의 그물에 빠지게 되자, 일찍이 인구에 회자되던 시문이 도리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도구로 귀착되었다.”는 김천우의 술회가 저간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반면 일부 제주 토착민과 제주목사 이운(李耘)의 실명이 문면에 노출되는 것은 교제의 성격과 시편의 내용이 사당(私黨) 수립이나 역모 동조의 혐의와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 金淨, 『冲菴集』 초간본(장서각 소장, D3B1588).  
金淨, 『冲菴集』 중간본(규장각 소장, 一簣古7320).  
申光漢, 『企齋文集』.  
安璫, 『己卯錄補遺』.  
李廷馨, 『知退堂集』.  
韓浚謙, 『柳川遺稿』.  
金商協 편, 『冲菴先生年譜』.  
安克孝 편, 『思齋先生實紀』.  
증보탐라지편찬위원회 편(2004),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6), 『己卯名賢手筆 己卯名賢手帖』, 韓國簡札資料選集 10.

### 【논 저】

- 김기동(1983), 「冲菴 金淨의 流配文學考」,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덕수(2016),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과 확산」, 『정신문화연구』 14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상조(2000),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13권, 대동한문학회.  
김유리(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호, 탐라문화연구소.  
박수천(1999), 「冲菴 金淨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4, 한국한시학회.  
양순필(1985), 「冲菴의 濟州流配漢詩考」, 『겨레어문학』 10호, 겨레어문학회.  
윤치부(2017), 「김정 <우도기>의 이본 고찰」, 『한국시기문화학연구』 40호, 한국시기문화학회.  
이종묵(2005), 「한국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문화: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80 인문논총 제76권 제1호 (2019.02.28)

정시열(2011),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한국고전연구』 24권, 한국고전연구학회.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2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

Hidden Names and the Social Interactions of  
Chung-Am (冲菴) During His Exile in Jeju

Kim, Deok-su\*

In 「*Haedorok* (海島錄)」, 37 poems with titles which were assumed to be written by Chung-Am (冲菴) while he was exiled in Jeju are listed. Since the number of poems is small and there are not enough records to deduce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social interactions of Chung-Am during his exile in Jeju. There are several points to be noted; the fact that 37 poems were listed in the anthology 「*Haedorok*」 from the beginning; that 「*Haedorok*」 existed right up to the publication of its second edition; that the comments were edited and their histories were judged arbitrarily while *Chungamjip* was published twice; that a lot of works in the early days of Chung-Am were untitled, that *Jejuilgi* (濟州日記), which is another assumed work of Chung-Am, existed until the time of compilation of <Chungamsunsaengyeonbo> (冲庵先生年譜), and other facts are worthy of attention. Despite the severe surveillance of the Hungupa, who we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wipe out the power of Confucian scholars, Sajedang (思齊堂), An Chu-Sun (安處順) helped the Gimyo-sages (己卯諸賢) both materially and morally.

---

\* Senior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etters from An Chu-Sun and the Gimyo-sages provide a glimpse into the harsh political situation and the daunted position of the Gimyo-sages; they also contain an intent to delive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affairs of the time. The frequent concealment or distortion of characters in the poems of Chung-Am written in Jeju can be regarded as representing efforts to get rid of any source of possible trouble, given that detection by radar of the Hungupa could have brought about a fatal result to the entire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names of some of local residents of Jeju and Lee Un, the governor of Jeju of the time, were fully stated in his works, because those works were distant from personal affection or allegations of conspiracy.